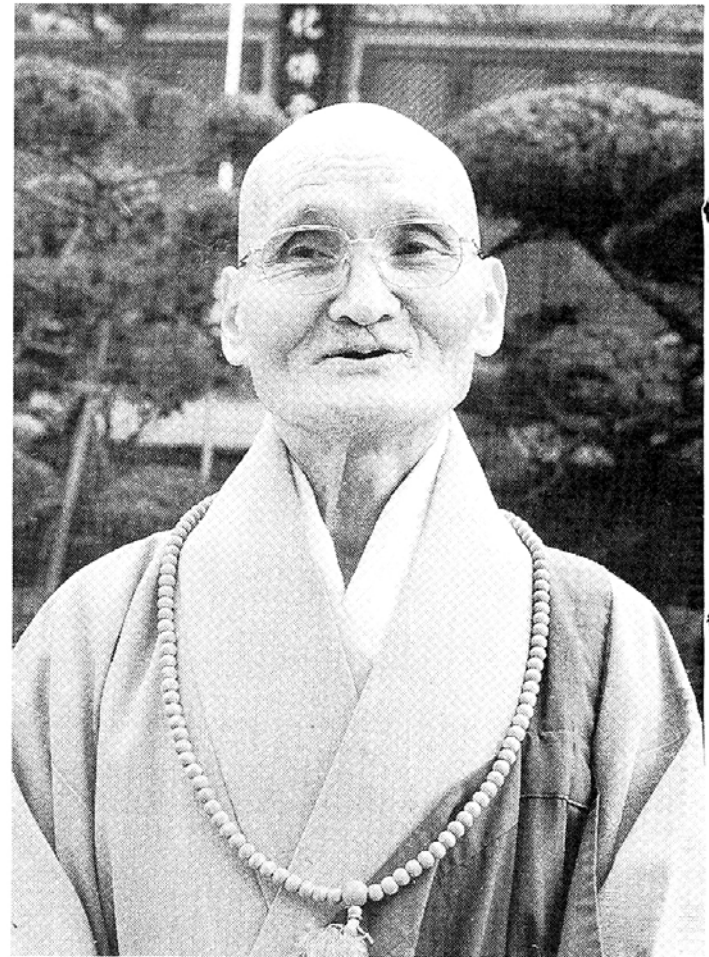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간절한 믿음 없으면

보안스님 (부산 감로사 주석)

앵무새처럼 남의 좋은 말
그럴싸하게 옮겨 놓는다고
깨달음 얻은 것이 아닙니다



· 1921년 생
· 1946년 밀양 표충사에서 출가
· 자운스님으로부터 전법
· 봉암사 상원사 도리사 등 전국 선방서 수행
· 1974~現 부산 감로사 주석

“禪은 평상심에 충실하는 것
밥 먹을때나 일 할때나
오직 그 일에 집중하세요”

믿음의 표시로 팔을 잘라 바치고 설법을
청했다는 것은 선가(禪家)의 유명한 얘
기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려는 결
코 진리의 문에 들어 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다문제일로 칭송이 자자
했던 아란존자는 설법을 듣는 자세 또한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때 아난존자는 심한 등창에 걸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
렀습니다. 그 수술은 보통사람으로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을 수도 있는 것
이었습니다. 의사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아난존자의 수술을 위해 설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했고, 칼로 살을
썬고 뼈를 깎아내는 데도 아난존자는 미
동도 하지 않았습다. 부처님의 설법에
심취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법을 들을 때도 이와같이 간절한 생
각이 없으면 법사의 설법은 그야말로 우
이독경(牛耳聽經)이 되고 맙니다. 설법을
들든,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간절하
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삶의 바른 길
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깨달음에 대
한 의미를 확고히 다지 못했지만 너

대로 큰스님을 떠나 전국 선방에서 ‘깨
달음’ 참구에 힘썼습니다. 40여년의 세월
이 했습니다.
도리사 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
방의 규율은 절집안 어느 곳보다 엄습나
다. 앉는 자리조차 규율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적든 절집 서열에 따라 방의 어간
에서부터 좌우 아랫목으로 자리를 정해
서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랫목인 하관
은 신할 수좌가, 뒷목 상관은 선배스님들
이 앉습니다.
산중의 선방은 커서 아랫목은 절절 끊
고 뒷목을 냉기가 돌기 일수입니다. 그러
니 하관은 졸음이 올뿐만 아니라 뜨겁기
조차 해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법랍
이 일천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아랫
목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방석 하
나를 깔고 앉아서 졸음과 뜨거움을 견뎌
야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인 참선의 진
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겨울 석달동안 가
부좌를 틀고, 점심공양도 잊은 채 좌선삼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안녕품(安寧品) ①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惱於怨 불노어원
衆人有病 중인유병
我行無怨 아행무원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원한 있던 일에 상내지 않는다
사람마다 원 맺힌 일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病於病 불병어병
衆人有病 중인유병
我行無病 아행무병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병고로 여기던 일 이젠 병이 아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병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병고가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感於憂 불착어우
衆人有憂 중인유우

“이기고 지는 마음 버리고 나면
다툼이 없어지니 스스로 편안”

我行無憂 아행무우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근심하던 일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근심걱정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淸淨無爲 청정무위
以樂爲食 이락위식
如光音天 여광음천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맑고 깨끗하여 마음에 함이 없다
기쁨으로 양식을 삼을 뿐이라
저 광음천의 삶과 같도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澹泊無事 담박무사
彌斷諸火 미신죽화
安能燒我 안능소아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마음이 맑아져 일이 없다
온 나라가 싹발로 가득찬들

어제 나를 태울 수 있을 소나

勝別生怨 승즉생원
負別自瞞 부즉자비
去勝負心 거승부심
無爭自安 무쟁자안

이기려하면 원한이 생기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진다
이기고 지는 마음 버리고나면
다툼이 없으며 스스로 편안하다

熱無過姪 열무과음
毒無過怒 독무과노
苦無過身 고무과신
樂無過滅 낙무과멸

음욕보다 더한 불은 없고
노여움보다 더한 독은 없으며
이 욕심 지닌것보다 더한 괴롭고
적멸보다 더한 즐거움 없다

無樂小樂 무락소락
小慧小慧 소변소혜
觀求大者 관구대자
乃獲大安 내회대안

음욕보다 더한 불은 없고
노여움보다 더한 독은 없으며
이 욕심 지닌것보다 더한 괴롭고
적멸보다 더한 즐거움 없다

조그만 즐거움 즐기지 않으며
얼은 지혜 말재주 즐기지 않고
살피고 살피 큰 법 구하면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르게된다

我爲世尊 아위세존
長解無憂 장해무우
正度三有 정도삼유
獨降衆魔 독강중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변
해탈이워 아예 걱정할 일없으니
바로 육계·색계·무색계 제도하고
홀로 온갖 마귀니를 항복받는다

見聖人快 견성인쾌
得依妙法 득의묘법
得離愚人 득리우인
爲善獨快 위선독쾌

거룩한 이 만나보는것 즐겁고
귀의할 곳 생기니 더욱 즐겁다
어리석은 이들과 섞이지 않으니
바른 길 걸음에 홀로 흥쾌하도다

龍眼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인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봉로화정’을 특허
로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
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
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
방식초’.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향비섯 검정계 감 누름김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
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
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
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
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
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
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
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약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
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
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
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시연스
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분내용량: 60봉지(2個月分)
용법: 1일1봉지(이침식후30분복용)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향 비섯, 검정
계...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
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
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
켜주는 현상이다.

분내용량: 1.8ℓ (약0.6되)
용법: 1일1스프(공복시 복용)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清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렇듯 성씨의 증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
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強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
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분내용량: 4.2ℓ (약2되)
용법: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가 격 : 30만원 (2개월분)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여래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